

유통기한 지났는데 “오늘 만들었어요”

가정간편식 불법판매 99곳 적발

경기도 HMR 제조업체 집중단속

프랜차이즈·브랜드 본사 포함
94곳 형사입건·5곳 행정처분



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 가공업체 단속장면. /경기도

경기도는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 HMR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하여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불결한 업소관리로 단속에 걸렸다.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 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끼여있는 등 조리기가 불결하고 전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김승철 기자 kimsy@metroseoul.co.kr

가평군 ‘사전심사청구제’ 호평에 5종 확대

경기도 가평군은 민원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사전심사청구제’를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거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청사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고성철 기자 ksc@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제품 홍보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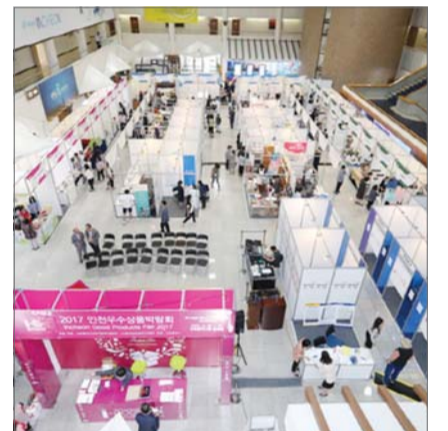
‘2018 인천우수수산물 박람회’ 개최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시청 중앙홀에서 ‘2018 인천우수수산물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5개 기업이 참여한다. 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의료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홍보와 전시 판매, 경품이벤트, 문화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위메프 등 다양한 유통관련 바이어(MD)들이 참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인천시의 다양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



2017 인천우수수산물박람회 사진 /인천시

으로 공공구매 상담 및 기업 매칭을 실시된다.

센터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착한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i-Good Fair를 브랜드 화해 사회적경제의 대표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편싸움’ 광주시의회, 조직개편도 차질 우려

반대측 의원 9명 본회의 모두 불참
집행부 요구 주요업무 줄줄이 차질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반쪽선거’로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의원 간 편싸움이 계속되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현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오전 김동찬 신임 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대측 반재신 의원 지지 의원 9명이 모두 불참해 끝바로 정회했다.

시의회는 전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반재신 측 의원들이 상임위원 배정에 관련한 의사 표현마저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의장단 선출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과 행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요 업무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조직개편 등이 올라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인된 146명을 반영해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1실 4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 파행 등으로 조직개편안이 아직 시의회에 접수되지 못했지만 시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로서는 조직개편안에 이용섭 시장 임기 초기 민선 7기 시정 방향 등을 반영한 만큼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 시의원들인 상태에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은 민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

경기도 ‘친환경 축산업육성 워크숍’ 성황

경기도 축산인들이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화성시 병점동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18년도 친환경 축산업육성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역축협 관계자, 도·시군 축산업담당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의 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깨끗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족분뇨 관리정책 관계자 및 축산환경전문기관의 관계자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상돈 사무관이 ‘가족분뇨 자원화정책방향’을, ▲축산환경관리원

박치호 부장이 ‘축산냄새 관리방안’,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 후, 현장에서 참석자들 간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줄이고, 가족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냄새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5개 분야에 237억 원을 투입,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 중이다.

김영수도 축산정책과장은 “노후 축사 개선, 분뇨처리시설 확충,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지원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족분뇨는 유기질 비료 자원으로, 축사는 냄새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초
김희동 의원 ‘위원장’ 선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김희동 의원(민평당, 진도)을 위원장으로, 김길용 의원(더민주, 광양3)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라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해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와 자격을 사후적으로 심사한다.

김희동 위원장은 “모범적인 의원상 정립을 위해 윤리특위 위원 모두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제 11대 도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도의회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영광소방서 화재발생 대응 현지적응 훈련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 함평119안전센터는 지난 11일 관내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훈련은 소방사다리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5대,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및 사고수습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훈련내용으로는 ▲119신고요령 및 인명대피훈련 ▲관계자 중심 구조대

사용요령 교육 및 훈련 ▲소방출동로 확보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훈련 ▲내소 화전등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훈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현지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